

부인의 가정관리 수행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

The Husband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bout 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任貞彬
박사과정 趙美奂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Assistant Professor : Im, Jeong Bin

Doctoral Course : Cho, Mee Wh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모형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husbands perceive home management behavior performed by wives and how much they are satisfied with it. This study also is to find out the variables affecting husband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i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husbands perceived that wives are somewhat efficiently performing the home management(mean score; 3.84 out of 5), and they are rather satisfied with 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mean score; 3.69 out of 5).

2) The variables which affect husbands' percep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performed by wives and their satisfaction of it are husbands' age, family life cycle, and wives' health status.

3) The husbands' satisfaction of home management are influenced more by the husbands' perception about wives' home management behavior than by the

demographic variables

I. 서론

가정은 가족의 생활의 장으로서 이 안에서 가족은 물질적, 정신적 욕구충족 및 발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본적인 생활행동이 바로 가정관리행동이다. 역사의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정생활도 그 구성과 기능 등 여러 측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나의 사회단위로서의 가족이 발전하도록 하는 가정관리행동은 인류역사 이래 계속 수행되어 왔다.

가정관리행동은 가정관리자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질 자원을 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합목적적 활동으로서, 관리활동의 결과는 가족원들이 느끼는 정서적, 주관적 반응인 만족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관리행동의 성공여부는 가정관리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로 결정된다. 그리고 관리행동의 결과로 가정관리자를 비롯한 가족원이 얻는 욕구충족과 만족감은 가족원 개개인의 발전, 가족의 내적 결속력, 외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을 가정관리자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이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정관리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70년대에 체계적 접근법의 도입으로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양과 질 양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대상을 가정관리자인 주부에게 초점을 두어 왔으며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부의 주관적인 평가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주부 외에 다른 가족원도 가정관리행동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결과가 실제로 가정관리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정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관리자의 관리행동 결과에 따라 가족원이 얻는 만족감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나아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아닌 다른 가족원을 대상으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정도를 파악하여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부의 가정관리 수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 방법을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부인과 함께 한 가정의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역할을 하며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남편이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남편이 부인이 가정관리를 얼마나 잘 수행한다고 여기며 수행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한 가정의 관리상태와 가족의 만족정도,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주부가 아닌 다른 가족원이 가정관리자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가정관리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리행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남편은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며,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부가 가족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가정관리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행동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이 가정내에서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여 수행되는 행동을 말한다. 즉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이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Deacon과 Firebaugh, 1975; Gross, Crandall, Knoll, 1980) 나아가 가정관리행동 시에는 생활의 모든 국면인 사회적·심리적·경제적·물질적·정신적·기술적 면과 관련있는 과학적 발견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Nickell, Rice, Tucker, 1976). 요약하면,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가치, 목표, 표준에 근거해서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창조하므로써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지향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행동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는 주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남편을 대상으로하여 이들이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수행한다고 여기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측정도구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酒井(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가정관리를 행위와 대상으로 나누어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을 측정한 연구이다¹⁾. 酒井(1969)의 척도는 가정관리행동을 인적 관리, 물적 관리, 행위의 3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인적 관리대상은 애정, 기질, 지식 및 기능, 체력의 4가지 자원으로, 물적 관리대상은 시간, 금전, 의·식·주, 가정설비·공공시설의 6가지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행위는 계획, 조정, 통제, 지도, 평가의 5가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상별로는 애정, 의복,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은 높고, 시간,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별로는 통제능력은 높고 계획능력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는 장명옥(1976)이 가정관리행동을 계획, 창의, 소비, 통솔·교육, 인간관계, 가사작업, 평가의 7 가지 하위영역으로 개발한 척도를 응용하여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인간관계(장명옥, 1976; 박미금, 1986; 유선희, 1985), 가사작업평가(김옥희, 1977; 지금순, 1982, 1993; 이정숙, 1994), 소비영역(신유순, 1986)의 행동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계획, 창의영역의 관리행동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옥희, 1977; 지금순, 1982; 1993; 신유순, 1986; 이정숙, 1994).

남편이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이에 대한 만족을 파악하는 것은 각 생활영역을 조사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라고 보아, 본 연구는 酒井(1969)이 개발한 척도 중 인적·물적 관리대상에 관한 척도와 장명옥(1976)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가정관리행동을 의, 식, 주,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정관리의 6개 생활영역별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가정관리만족

가정관리만족은 관리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정도로써, 관리에 대한 기대와 실제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개인적 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두경자, 1990).

가정관리만족에 대한 연구는 Newton(1979)의 연구를 시초로 하여 몇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Heck,

1)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관리능력이란 자원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수행과정 및 결과로 나타난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가정관리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상정기(1976), 한상순(1978, 1979), 이정우(1981, 1982), 김정옥(1983), 이정숙(1984) 전은옥(1985), 두경자(1986), 이명숙(1987), 박현미(1987), 박경규(1988), 이정우와 박미금(1988), 이정우와 김경숙(1993)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1983; 두경자, 1990; 최호숙, 1992; 임혜경, 1993). Newton(1979)은 금전관리방법, 주어진 시간의 양, 가족원간 가사분담 양과 질, 여가 및 오락시간 사용방법의 5개 영역에 대한 관리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관리에 대한 만족감이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eck(1983)도 관리만족도를 가족자원 관리체계의 산출요소라 규정짓고 청소, 식사, 세탁결과, 옷의 양, 식품의 양, 건강, 자유시간, 자녀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자녀의 성취 등 10가지 가사노동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정도를 측정하였고 두경자(1990)는 Heck(1983)의 척도를 기초로 6개 영역의 관리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최호숙(1992)은 관리만족을 계획과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만족뿐 아니라 시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양육,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임혜경(1993)도 가정관리만족을 가사노동 수행방법과 결과, 가족과의 시간,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참여,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 정도로 측정하여 파악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가정관리의 하위영역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식, 주, 시간 등의 물질 자원영역과 가족관계, 자녀양육의 인적 자원 영역 모두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3.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만족

가정관리자가 관리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관리행동의 결과로 가정관리자 및 가족원이 느끼는 만족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나아가 전체적인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주부에 초점을 두고 가정관리만족도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Newton(1979)은 효율적인 관리행동은 관리의 만족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eck(1983)은 계획을 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두경자(1990)는 표준설정이 높을수록, 현실가능성이 높을수록, 촉진조건이 많을수록 주부

의 관리만족도가 높았고, 관리만족도를 느끼는 주부는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경숙(1993)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 높을 때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이정숙(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주부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정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자신의 가정관리만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가정관리행동과 가정관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부의 연령에 따라서는 가정관리능력과 가정관리만족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영미, 이길표(1984), 박미금(1984)은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우수한 가정관리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장명옥(1976), 지금수(1992)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정우(1982), 지금수(1982, 1993), 서리나, 한경미(1994), 안선자, 이정우(1996)는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가정관리만족에 대한 연구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홍성희(1994)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만족이 높다고 보고한 반면 Heck(1983)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관리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이정우, 1982; 신유순, 1986; 이정우, 이정숙, 1992; 김경숙, 이정우, 1993; 안선자, 이정우, 1996)과 가정관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최호숙, 1992; 홍성희, 1994) 나타났다. 그러나 오정옥(1986), 서리나, 한경미(1994)는 소득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장명옥(1976), 이영미, 이길표(1984), 안선자, 이정우(1996)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반면

박미금(1984), 오정옥(1986), 지금수(1993), 서리나, 한경미(1994)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가정관리능력은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관리만족간의 관계는 Heck(1983), 최호숙(1992)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관리만족 정도가 높다고 한 반면 두경자(1990), 홍성희(1994)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관리만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대체로 주부의 취업 여부 혹은 직업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미금, 1984; 오정옥, 1986; 서리나, 한경미, 1994; 지금수, 1993; 안선자, 이정우, 1996). 그러나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가정관리능력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유순, 1986; 박현미, 1987; 안선자, 이정우, 1996).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정관리만족도간의 관계는 대체로 부인이 취업한 경우 관리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eck, 1983; 두경자, 1990).

부인의 건강에 따라서는 Heck(1983), 두경자(1990)는 부인의 건강이 나쁜 경우에 자신의 가정관리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주부의 경우에는 주부의 연령, 소득, 교육수준, 주부의 취업여부, 건강상태 등이 가정관리능력 혹은 행동과 가정관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정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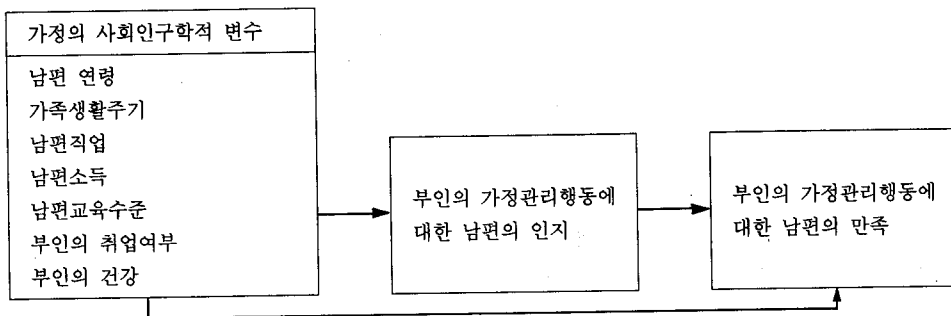
〈연구문제 2〉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은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는 이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이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작성

조사도구는 선행관련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로서 구성내용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7문항, 가정관리행동 관한 질문 21문항, 가정관리만족에 관한 질문 1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도구의 타당도는 가정관리학 전공자(교수 1명, 박사 3명, 석·박사과정생 4명)에 의해 내용이 검토되었고 척도 및 변수들의 구성내용과 신뢰도는 다음



〈그림 1〉 연구모형

과 같다.

1) 가정관리행동

장명옥(1976), 이정숙(1994)의 척도를 참고, 보완하여 의, 식, 주,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정관리의 6개 하위영역의 총20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형 방식으로(최저21점~최고105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수준을 높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91이다.

2) 가정관리만족도

Heck(1983), 두경자(1990)의 가정관리만족척도를 보완하여 부인이 6개 관리영역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likert형 질문으로(최저 13~최고65점)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수행한 가정관리결과에 대해 만족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90이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1.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거주지와 직장의 소재지가 서울인 기혼 남성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1995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60명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표집설계는 먼저 기혼남성의 직업을 7개 직종으로 총화한 다음 유의표집을 이용하여 각 직종별로 조사사업장을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1995년 9월 10일부터 2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질문지의 배부는 가정관리학전공 대학원생과 연구자가 직장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과 각 사업장마다 1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그를 조사요원으로 하고 그 사람이 조사대상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질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3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단

순빈도,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9)

변수	구 분	빈도(%)
남편 연령	20대	99(27.6)
	30대	156(43.5)
	40대	82(22.8)
	50대 이상	22(6.1)
가족 형태	확대가족	64(17.9)
	핵가족	294(82.1)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48(13.4)
	자녀양육기	136(38.0)
	자녀교육기	111(31.0)
	자녀성년기	52(14.5)
결혼 지속 연수	2년이하	67(18.7)
	3-10년	158(44.0)
	10-20년	81(22.6)
	20년이상	53(14.8)
부인 건강	건강함	201(56.0)
	보통	118(42.9)
	건강치못함	40(11.1)
남편 직업	전문·경영관리직	24(6.7)
	전문기술·사무직	247(69.0)
	자영업	63(17.6)
	생산·판매·서비스	24(6.7)
부인 직업	취업	119(33.1)
	전업	240(66.9)
소득	150만원미만	104(29.0)
	150-200만원미만	87(24.2)
	200-300만원미만	117(32.6)
	300만원이상	51(14.2)
남편 교육 수준	고졸이하	111(30.9)
	대졸	202(56.3)
	대졸이상	46(12.8)

*빈도수가 다른 것은 missing value 때문임.

IV. 결과 및 해석

1.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의 일반적 경향

남편들은 대체로 부인이 가정관리를 잘 수행한다

고 여기고 있으며(3.84점/5점만점), 생활영역별로는 의생활영역을 가장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 자녀양육, 주생활영역, 재정관리의 순이며 식생활영역에 대한 평가에 가장 낮다(〈표 2〉).

〈표 2〉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

가정관리영역	평균	순위	표준편차
의생활영역	4.11	1	0.87
가족관계영역	4.03	2	0.74
자녀양육영역	3.92	3	1.19
주생활영역	3.78	4	0.88
재정관리영역	3.67	5	0.88
식생활영역	3.59	6	0.82
전체	3.84		0.62

식생활영역에 대한 수행평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 영역의 사회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대부분의 식생활 행동이 주부들의 손을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손쉽게 시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식생활영역에 그리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이 영역에 대한 수행평가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2.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의 일반적 경향

남편들은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결과에 약간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3.69점/5점만점), 생활영역별로는 의생활영역에 가장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이 식생활영역, 주생활영역, 재정관리영역의 순이고 가족관계영역과 자녀양육영역에 대해서는 만족정도가 낮다(〈표 3〉).

본 연구결과 남편들은 대체로 부인들의 물리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더 만족하나 인간관계, 자녀양육 등 인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덜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앞의 가정관리행동인지 결과

〈표 3〉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

가정관리영역	평균	순위	표준편차
의생활영역	3.93	1	0.89
식생활영역	3.73	2	0.78
주생활영역	3.71	3	0.90
재정관리영역	3.67	4	0.78
가족관계영역	3.63	5	0.79
자녀양육영역	3.40	6	1.19
전체	3.69		0.65

와 연관시켜 보면, 남편은 부인이 가족관계, 자녀양육영역의 관리는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만족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관리는 물리적인 면의 관리처럼 그 결과가 가시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표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의생활영역은 모든 영역 중에서 수행과 결과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시적인 면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생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표 4〉)

남편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에 대해서는 40대 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40대 집단은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다. 이는 남편은 40대가 되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기이므로 가정이 안정과 휴식을 주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가족의 확대기로서 재정문제, 자녀교육 및 진학문제가 자녀의 사춘기와 맞물려서 관리상에 복잡한 변수들이 작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

변수	구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정관리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남편 연령	20대	3.69	4.24 a	3.79 ab	4.24	3.50 a	3.86	3.90
	30대	3.62	4.16 a	3.85 b	4.01	3.94 b	3.68	3.86
	40대	3.48	3.84 b	3.52 a	3.92	4.30 b	3.53	3.70
	50대이상	3.51	4.20 a	3.90 b	4.05	4.13 b	3.60	3.87
	F 값	0.94	3.21*	2.96*	2.25	3.06*	1.56	1.37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3.58	4.31	3.87	4.23 a	2.54 a	4.05 a	3.82
	자녀양육기	3.65	4.15	3.84	4.11 a	4.20 b	3.68 b	3.91
	자녀교육기	3.56	3.99	3.69	3.86 b	4.11 b	3.53 b	3.77
	자녀성년기이후	3.42	4.15	3.73	4.08 ab	4.02 b	3.58 b	3.80
	F 값	0.69	1.49	0.52	3.00*	23.64***	3.49**	0.89
남편 교육 수준	고졸이하	3.57	4.08	3.78	4.07	4.02	3.73	3.85
	대졸	3.60	4.14	3.78	4.01	3.88	3.67	3.83
	대졸이상	3.57	4.07	3.77	4.05	3.84	3.53	3.81
	F 값	0.04	0.20	0.01	0.32	0.57	0.76	0.07
남편 직업	전문·경영직	3.64	4.24	3.68	4.06	3.90	3.73	3.85
	전문기술사무직	3.60	4.11	3.81	4.04	3.88	3.67	3.84
	자영업	3.50	4.07	3.72	3.93	4.05	3.58	3.77
	생산기능판매직	3.58	4.05	3.77	4.12	3.58	3.78	3.85
	F 값	0.26	0.24	0.27	0.55	0.38	0.40	0.22
소득	150만원이하	3.54	4.22	3.87	4.07	3.87	3.72	3.86
	150-200만원	3.77	4.17	3.80	4.06	4.11	3.81	3.91
	200-300만원	3.54	4.05	3.78	4.01	3.81	3.61	3.81
	300만원이상	3.47	3.95	3.58	3.95	3.95	3.45	3.70
	F 값	2.12	1.50	1.29	0.39	1.18	2.19	1.28
부인 취업 여부	취업	3.52	4.00	4.63	4.12	3.91	3.70	3.82
	비취업	3.62	4.17	3.86	3.99	3.92	3.65	3.84
	T 값	-1.01	-1.75	-2.26*	1.58	-0.08	0.48	-0.33
부인 건강	건강함	3.67 a	4.16 a	3.83 a	4.10 a	3.86	3.74 a	3.89 a
	보통임	3.57 a	4.20 a	3.84 a	4.03 a	4.02	3.76 a	3.88 a
	건강치못함	3.21 b	3.62 b	3.38 b	3.71 b	3.78	3.02 b	3.41 b
	F 값	5.41**	7.68***	4.87**	4.61*	0.82	12.87***	10.81***

* p < .05, ** p < .01, *** p < .001

용하여 상대적으로 이 두 영역에는 신경을 덜 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두 영역의 수행정도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양육영역은 남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집단별로는 20대집단과 30대집단이상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대 집단은 자녀양육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인의 관리행동을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정관리, 정보활용영역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와 재정관리영역은 형성기에 부인이 가정관리를 가장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며 단계가 발전할수록 낮아져서 자녀교육기에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자녀가 성년기 이후가 되면 다시 잘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자녀교육기는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중인 시기이므로 자녀에게 보다 많은 신경을 쓰느라 다른 가족관계 측면이 소홀하게 되고 또한 자녀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두 영역에 대한 수행정도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은 형성기와 자녀양육기이후 단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생활주기단계 중 자녀양육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기는 부인이 자녀의 신체적·비신체적 돌보기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인이 건강한 경우에는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하였으며 자녀양육은 부인의 건강에 관계없이 대체로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가정관리에 주부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과 소득, 부인의 취업여부 등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남편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부인의 건강 등의 변수가 남편이 부인이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인의 취업여부는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4.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

남편의 연령에 따라서는 의생활, 주생활, 자녀양육, 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5〉). 의생활, 주생활, 전체영역은 20대집단이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차츰 낮아져서 40대집단에서 가장 낮고 50대 이상이 되면 다시 높아지는 U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의, 주생활영역에서 40대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위의 가정관리 수행인지 결과와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다.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지하면 궁극적으로 수행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주생활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영역에서 가족생활주기 초기에는 만족도가 높고 단계가 발전하면서 차츰 낮아져서 자녀교육기에 가장 낮으며 자녀 성년기가 되면 다시 높아지는 U자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urr(1970)의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가 미취학기에서 취학기로 갈 때 만족정도가 낮아지다가 은퇴기가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 등의 변수는 어떠한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부인의 취업여부는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결과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 결과와 관리만족에 대한 결과를 연관시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이러한 결과를 취업기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 자신은 과중한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힘든 생활을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취업기혼여성은 이중역할을 열심히 수행하여 남편은 부인이 가정관리를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결과는 취업부인의 남편은 부인이 취업했다는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

변수	구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재정관리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남편 연령	20대	3.82	4.17 a	3.93 a	3.81	2.93 a	3.81	3.76 a
	30대	3.77	3.97 a	3.73 a	3.65	3.52 b	3.70	3.74 a
	40대	3.58	3.68 b	3.38 b	3.45	3.23 b	3.51	3.47 b
	50대이상	3.71	3.92 ab	3.85 a	3.64	3.74 c	3.60	3.74 a
	F 값	1.34	3.40*	5.00**	2.20	5.50**	1.75	3.44*
가족 생활 주기	형성기	3.71 ab	4.11 a	3.93	3.74 a	1.98 a	3.83 a	3.62 ab
	자녀출산양육기	3.87 a	4.04 a	3.76	3.74 a	3.83 b	3.76 a	3.84 a
	자녀교육기	3.56 b	3.72 b	3.50	3.41 b	3.35 b	3.46 ab	3.49 b
	자녀성년기이후	3.73 ab	3.91 ab	3.75	3.69 a	3.69 b	3.55 b	3.71 a
	F 값	2.60*	2.60*	2.31	3.20*	21.64***	4.27**	4.91***
남편 교육 수준	고졸이하	3.64	3.81	3.57	3.56	3.44	3.57	3.61
	대졸	3.77	3.97	3.75	3.66	3.35	3.67	3.70
	대졸이상	3.83	4.04	3.86	3.67	3.54	3.86	3.84
	F 값	1.30	1.62	2.17	0.67	0.55	2.26	2.04
남편 직업	전문·경영직	3.71	4.08	3.85	3.65	3.50	3.79	3.76
	전문기술사무직	3.77	3.97	3.74	3.64	3.38	3.69	3.72
	자영업	3.63	3.72	3.60	3.60	3.48	3.51	3.55
	생산기능판매직	3.61	3.86	3.52	3.52	3.27	3.64	3.58
	F 값	0.75	1.61	0.91	0.20	0.23	1.12	1.39
소득	150만원이하	3.69 ab	3.97 a	3.70 ab	3.66	3.36	3.66	3.70 a
	150-200만원	3.86 a	4.01 a	3.71 ab	3.62	3.59	3.74	3.75 a
	200-300만원	3.79 a	3.99 a	3.84 a	3.71	3.42	3.67	3.75 a
	300만원이상	3.47 b	3.61 b	3.40 b	3.43	3.14	3.53	3.41 b
	F 값	3.14*	2.70*	2.91*	1.50	1.60	0.82	3.61*
부인 취업 여부	취업	3.65	3.87	3.71	3.71	3.32	3.69	3.67
	비취업	3.78	3.96	3.71	3.59	3.44	3.65	3.70
	T 값	-1.42	-0.88	0.05	1.32	-0.88	0.45	-0.37
부인 건강	건강함	3.81 a	3.98	3.79 a	3.70 a	3.43	3.73 a	3.75 a
	보통임	3.73 a	3.91	3.68 ab	3.60 a	3.39	3.70 a	3.68 a
	건강치못함	3.36 b	3.74	3.40 b	3.38 b	3.34	3.27 b	3.38 b
	F 값	5.72**	1.33	3.15*	2.95	0.11	5.86**	5.28**

* p <.05, ** p <.01, *** p <.001

전업주부남편보다 부인의 가정관리 수행에 대한 표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가 더 설득력을 지닌다면 취업기혼여성은 과중한 이중역할 부담과 이로 인한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을 지닌다면 취업기혼여성이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득변수에 따라서는 의, 식, 주 및 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00만원이상집단이 300만원이하집단보다 만족정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정관리 혹은 가정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다(Hayes & Stinnett, 1971; Hafstrom & Dunsing, 1973; Lytton, 1986; 임정빈, 1988; 이종숙, 1989). 의, 식, 주영역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가사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나아가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된 영역이다. 또한 소득이 많으면 주부가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므로 소득이 많으면 주부가 의, 식, 주와 같은 물리적인 측면의 가정관리를 타인(고용된 가사조력인)에게 위임시키거나 사회화시킬 가능성이 보다 클 것이다. 반면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의, 식, 주와 같이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영역을 타인에게 위임시키거나 사회화시키면 부인의 정성어린 손길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부인의 경우에는 가정생활만족도가 증가하나 남편의 경우에는 만족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건강에 따라서는 식, 주생활, 재정관리 및 전체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이들 영역에 대한 만족 정도가 낮았다. Heck(1983),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 부인의 건강은 자신의 가정관리만족에도 중요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부인의 건강상태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편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소득, 부인의 건강 등이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5. 부인의 각 영역별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인이 수행한 각 영역별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이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중공선성을 야기시킬만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인이 수행한 각 영역별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이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족관계영역($\beta=.23$)의 관리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의생활($\beta=.20$), 주생활($\beta=.20$), 자녀양육($\beta=.12$)영역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6>). 부인이 가족관계, 의생활, 주생활, 자녀양육영역의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이에 대한 남편의 만족정도가 높았으며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47%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은 한편으로는 가족간의 유

<표 6> 부인의 각 영역별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β
의생활	.15	.20**
식생활	.05	.24
주생활	.15	.20**
가족관계	.21	.23***
자녀양육	.07	.12**
재정관리	.07	.10
상수 F값	0.99	
R ²	42.62***	
	.47	

** p <.01, *** p <.001

대강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6.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인의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표 7> 가정관리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군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b	β	b	β
남편연령	.00	.05	.00	.05
남편교육수준	.04	.14*	.05	.17***
소득	-.00	-.18**	-.00	-.15**
아내의 건강	-.13	-.18**	-.05	-.06
아내의 취업여부	-.08	-.06	-.08	-.06
의생활			.14	.19**
식생활			.04	.05
주생활			.15	.20***
가족관계			.20	.22***
자녀양육			.09	.15***
재정관리			.10	.14*
상수	3.45		.38	
F값	4.39***		26.53***	
R ²	.07		.52	
R ² 증가량			.45	
D-W 계수	2.02		1.94	

* p <.05, ** p <.01, *** p <.00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인의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 변수가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군을 단계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위계적 회귀분석은 각 범주의 독립변수들이 위계적으로 첨가됨에 따라 각 범주군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설명력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가정관리행동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게 해준다(조혜정, 1994).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1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인의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가 .80의 높은 상관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남편의 연령만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으며 부인의 취업의 취업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취업인 경우에는 1, 비취업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을 독립변수로하여 남편의 관리만족을 분석한 결과 부인의 건강($\beta = -.18$), 소득($\beta = -.18$), 남편의 교육수준($\beta = .1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 정도가 낮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다. 투입된 변수들은 이 분산의 7%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에 부인의 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beta = .22$), 주생활($\beta = .20$), 의생활($\beta = .19$), 남편의 교육수준($\beta = .17$), 자녀양육($\beta = .15$), 소득($\beta = -.15$), 재정관리($\beta = .14$)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이 가족관계, 주생활, 의생활, 자녀양육, 재정관리 영역의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남편은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만족하고 있고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정도가 낮다.

본 연구결과 부인이 식생활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가정관리를 잘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남편의 만족정도가 높았다. 식생활 관리행동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이 영역은 사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 대한 부인의 관리행동이 남편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석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인이 수행하는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기대와 표준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입장에 보면 소득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유과 기회가 많아지므로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한 남편의 높은 기대와 표준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므로 남편은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낮게 인지하게 되고 나아가 만족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은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타변수를 통제한 다음 한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다회귀분석결과에서는 가정관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건강도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가정관리행동이 함께 투입되자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정관리영역의 정적인 영향력이 이 변수의 부적인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변수의 영향력이 상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은 가정관리만족을 52% 설명하고 있다. 이를 앞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과 비교해 보면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가 투입됨으로써 설명력이 4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은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편은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인지하며,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주부의 가정관리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동시에 이들의 가정관리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남성 35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얻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들은 대체로 부인이 가정관리를 잘 수행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생활영역별로는 의생활영역을 가장 잘 수행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 자녀양육, 주생활영역의 순이며 식생활행동을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다.

또한 남편들은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행동에 만족하는 편이며, 의, 식, 주생활 등과 같이 수행결과가 가시적이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일반가사영역과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가족관계와 자녀양육 영역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정도가 낮다.

둘째,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는 남편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부인의 건강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인의 취업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편의 연령이 40대 집단과 가족생활주기가 자녀교육기에 속한 집단 및 부인의 건강이 나쁜 경우에 부인이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낮다.

셋째,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는 남편의 연령, 가족생활주기, 소득, 부인의 건강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남편의 연령이 40대 집단과 가족생활주기가 자녀교육기에 속한 집단, 소득이 300만원이상집단이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으며 부인이 건강할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

넷째, 남편들은 부인이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영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가정관리에 만족한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변수가 남편의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인지변수가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남편의 가정관리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군만을 투입하여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만족을 분석한 결과 부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만족정도가 낮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군에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의 만족정도가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정도가 낮으며, 부인이 가족관계, 주생활, 의생활, 자녀양육, 재정관리 영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남편은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남편들은 부인이 가족관계와 자녀양육에 대한 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여기지만 수행의 결과에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의, 식, 주생활등의 일반가사영역보다 가족관계와 자녀양육영역 등은 결과가 즉각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관리행동을 잘하는 만큼 결과에 대해 만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에는 남편의 연령, 가족생활주기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달단계 측면과 부인의 건강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편들은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하여 가족생활주기 초기에는 만족도가 높고 단계가 발전하면서 차츰 낮아져서 자녀교육기에 가장 낮으며 자녀성년기가 되면 다시 높아지는 U자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인의 건강상태는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 변수는 부인의 가정관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미루어 부인의 건강상태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가정관리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편들은 부인이 의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지할수록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만족했는데 이러한 결

과에서 남편들은 가족간의 유대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이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만족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부인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의 가정생활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 부인의 취업여부는 부인이 수행한 가정관리에 대한 남편의 인지와 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취업 기혼여성들은 여전히 과중한 이중역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동시에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자녀를 대상으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분석한다면 주부의 관리행동이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주부가 가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하여 남편이 어떻게 인지하고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파악한 것이다. 가족의 일원인 남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인의 가정관리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면을 파악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숙(1994).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 김경숙, 이정우(1993).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1(3), 29-46.
- 3) 두경자(1990). 가정관리 체계모형의 실증적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박현미(1987). 가정관리능력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미금(1984). 도시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서리나, 한경미(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과 과 대상별 가정관리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68-79.
- 7) 신유순(1986). 전북지역주부의 가정관리지식과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안선자, 이정우(1996).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5-200.
- 9) 유선희(198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오정옥(1986).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남편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명숙(1987).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자원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영미, 이길표(1984). 행위와 대상에 나타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61-74.
- 13)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이종숙(1989).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5) 이정우(1981). 가정관리연구. 수확사.
- 16)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임혜경(1993).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지금수(1993).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 유형, 능력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연구. 목련회.
- 20) 최호숙(1992).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홍성희(1994). 주부의 시간계획 및 관리전략에 따른 관리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47-58.
- 22) Burr, W.R.(1970).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0):29-37.
- 23) Deacon, R., & Firebaugh, F.(1975).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 Bacon.
- 24) Gross, I.,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Inc.
- 25) Hafstrom, J.L., &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26) Hayes, M.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669-647.
- 27) Heck, R.K.(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2): 117-136.
- 28) Lytton, R.H.(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a system mode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29) Newton, D.L.(1979).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30) Nickell, P., Rice, A.S., & Tucker, S.P.(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31) 酒井ノブ子(1969). 家庭管理能力の研究. 東京:書店.